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 개막

- 1980년부터 45년간 축적으로 석유 수급위기 대응 능력 강화
- 제5차 석유비축계획('25.12.5) 통해 정부 비축체계 질적 고도화 추진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석유비축 1억 배럴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지난 45년 동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꾸준히 비축유 확보에 힘써 온 성과다.

산업부는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 기지에 도착함에 따라,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 배럴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약 0.95억 배럴을 비축하고 있어('25.10월 기준),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정한 일 순수입량 기준으로 2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1·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부는 1980년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유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IEA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에너지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어떠한 석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월초 마련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에서는 비축유의 양적확대보다는 국내 수요에 적합한 선호 유종으로 재구성하는 등 비축체계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석유를 저장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인 만큼, 노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재난 대응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이행되며, 그간 축적된 석유 비축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석유 공급망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한서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민성 (044-203-5223) 김승애 (044-203-5227)



1. 석유비축계획 개요

-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 (주요내용) 비축목표, 비축할 석유의 종류와 물량, 비축시설 등

2. 현황 및 대내외 여건

- (현황) 1, 2차 오일쇼크 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이행* 중으로('80~), 4차례의 비축계획 결과 총 100.1백만배럴 비축 달성
 - * 1차('80.6~'89.12), 2차('90.2~'03.12), 3차(95.7~'13.12), 4차('14.11~'25.12)
- (대내외 여건)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석유수요 정점이 '30년 전후 예상

3. 제5차 석유비축계획

- (기본방향) 1~4차 비축계획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비축유 확보, 5차에서는 대규모 양적확대보다는 공급망, 국내 석유수요 변화 등 중점 대응
- (계획기간) 석유수요 등에 탄력 대응하기 위해 '26~'30년(5년)으로 설정
- (비축목표) '25년 100.1백만 배럴 → '30년 102.6백만 배럴(+250만배럴)
 - 국내 산업여건, 수요변화에 맞춰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물량 일부 확대
- (유종교체) 국내 중질 유종 비축원유 일부를 경질 유종으로 교체
- (안전관리) 비축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위해 매설배관, 비축 탱크 검사 후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소방시설 개선 등 추진